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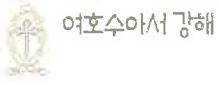
☉ 2006년도 표어 ☉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가나안 정벌

(여호수아 10:16-12:24)

여호수아 10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언급되면서 아이 성, 기브온 언덕에서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도니세텍 왕을 포함한 아모리 다섯 왕이 동맹을 맺어 기브온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기브온은 길갈에 진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원병을 요청했습니다.

1. 남방 정벌

기브온에서 승리한 것을 기점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고상한 정신을 가진 장군이었습니다. 장군을 영어로 'general'이라고 합니다. 장군은 일반적으로 모든 면에 통달해야 하는데 특히 인격과 신앙이 원만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인격과 신앙이 조화를 이룬 고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큰 우박을 내려 원수를 죽이셨으며 이스라엘을 위해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사랑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해 지기 전까지 적들의 사체들을 나무에 달아두었다가 해 진 후에 끌어내어 그들이 숨었던 굴에 던져들로 막았습니다. 이 같은 처사는 잔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정복 행위가 곧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침략전도 방위전도 아닌 성전(聖戰)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항하는 것이므로 여호수아는 여러 족속들을 철저히 진멸하되 그들의 근거지도 없애 버렸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죄의 뿌리까지 뽑아 없애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매 번 승리를 거둬했습니다.

2. 북방정벌

가나안 땅 북방에 있는 왕들은 남쪽에 있는 왕들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듣고 동맹군으로 방어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성도의 담력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다”(시 27:3).

Athanasius는 그리스도의 신성교리를 주장하다가 20년 간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인하여 담력을 얻어 “은 세상이 나를 대적하는가? 내가 은 세상을 대적하리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여호수아가 북방 나라들을 정벌할 수 있었던 데에는 몇 가지 비결이 있었습니다.

첫째, 여호수아는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만 믿고 전투에 임했습니다(11:6).

둘째, 이스라엘은 선제공격을 했습니다(11:7). 우리는 죄에 대해 이처럼 적극적인 공격을 해야 합니다. 죄 문제만큼은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됩니다. 죄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지면 오히려 죄에게 패하고 맙니다.

셋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습니다(11:9).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벌을 통해 훌륭한 지도자 상을 보여줍니다. 그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를 결단한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종종 목전의 일에만 치중하다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맡겨진 과업을 달성하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권 선정을 바로 하여야 합니다.

에게 말의 뒷발 힘줄을 끊으라고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어쩌면 말을 죽이는 편이 더 용맹스러워 보이고 더 쉬웠을 테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11:15).

남을 잘 가르치는 자는 자신이 잘 배운 자이며 남을 잘 다스리는 자는 자신이 진리에 잘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왕들을 정복한 것은 모세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Josephus는 당시 가나안 군대수는 30만 명이었고, 기병이 10만 명, 마병이 2만 명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이런 군대와 전쟁을 해 본 경험이 없었다고 기록하며 덧붙여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원수는 가나안 군병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자신이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는 말이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보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붙이셨고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3. 훌륭한 지도자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벌을 통해 훌륭한 지도자 상을 보여줍니다. 그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를 결단한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종종 목전의 일에만 치중하다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맡겨진 과업을 달성하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권 선정을 바로 하여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필요를 이해한 지도자입니다. 다섯 왕을 잡아왔을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부르고 군장들로 하여금 왕들의 목을 발로 밟게 하여 그들에게 공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을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라고 말하며 격려합니다(10:24-25).

여호수아는 쉽게 갈 수 있는 편법을 찾기보다 정도를 걸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전진을 추구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먼저 왕들을 물리치고 가나안을 향해 전진해 갔습니다.

여호수아 10-12장에 짧게 썩여진 가나안 정복사는 7년 간에 걸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신자가 되는 데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고 믿음대로 행한 지도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움을 받은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여호수아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더불어 한국 교회에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한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서울교회 다락방 수칙 제정

우리교회는 성도들이 모여 신앙 교제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성경공부를 하는 모임인 다락방 모임을 더욱 활성화하고 은혜로운 모임으로 키워나가자

서울교회 다락방 수칙을 제정하였다.

모든 성도들은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여 사랑이 넘치는 은혜로운 다락방 모임이 되도록 힘쓰기 바란다.

-서울교회 다락방 수칙-

1. 서로 존중하라

존댓말 쓰기/흔계조나 말 가로채기 하지 않기/지방방송 않기, 연장자 존중하기/서로 시간을 지키자

2. 서로 수용하라

미숙한 이가 엉뚱한 말을 해도 정죄, 비난, 거절하기 말고 수용/세상은 바뀌어도 나는 받아들이 수 없다는 자세는 버려야/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라

3. 서로 진실하라

잘난 체, 믿음 좋은 체 하지 말라/성공담만 말하지 말고 실수, 실패도 말하라(자백-용서-수용-증보기도)

4. 서로 비밀을 지켜라

본인 허락 없는 목사, 남편(아내), 친구에게도 말하지 말라/안전지대를 형성하라

5. 서로 책임을 지라

비난이나 탓하는 대화는 말라/책임을 누구에게 돌리지 말라(영적성장이 없다/크리스천에게는 회생은 있으나 남을 손해나게 할 수는 없다.

6. 서로 열린 마음을 가지라

과거는 묻지 말라/단정 짓지 말라/미래 변화에 대하여 마음을 열어서/끝났다 잡았다는 생각 말라

7. 서로 격려하라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개인주의, 이기주의는 금물이다

-은혜롭고 사랑스런 우리 다락방을 만드자-

후반기 열린프로그램 수강신청 금주 마감

- 기회는 열려 있어 -

2006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이 열강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21일(월) 개강 후 현재 많은 성도들이 등록 하여 새벽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본인의 시간에 맞는 강의를 듣고 있다.

제20학기 서울성경대학은 요한계시록반(월-오전 10시, 602호), 소선지서반(화-오전 6시, 602호), 누가복음반(목-오후 7시30분, 602호), 역대기반 (금-오전 6시, 602호), 교사양성반(주일-오후 3시20분, 609호), 교구일꾼양성반(주일-오후 3시20분, 607호)이

개설되었고 12학기 서울주부대학(화-오전 10시 601호)과 13학기 살롬경로대학(목-오전 10시, 101호), 4기 세계선교대학(월 오후 7시 602호), 7기 결혼예비학교(주일 오후 12시30분, 905호)도 성도들의 수강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열린프로그램 수강신청은 금주 중에 마감되므로 이치 열려있는 이 기회를 선용하여 성경지식도 쌓고 전도의 기회로도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 신청은 사무국에서 받고 있다.

열린바자 판매장소 추첨

오후 1시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2006열린바자 준비위원회(위원장 노송성 장로)는 9월의 첫 주일인 오늘 각 교구가 판매할 장소를 추첨하여 배정한다.

교구에서 판매를 담당할 교구장과 영업부장, 실행 위원들은 빠짐없이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 모여 추첨에 참여하기 바란다.

2006 이웃사랑·사랑의 집 건립을 위한 열린바자는 오는 9월21일(목)부터 22일(금)까지 이틀간 본 교

회 1층(로비, 앞마당) 및 8층 식당 그리고 한티공원에서 교구에서 준비한 각종 상품과 먹거리 등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구제와 사랑의 집 건립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교회는 이번 열린바자를 위하여 9월10일과 9월17일 자 순례자를 특별 제작하기로 하였다. 성도들은 이웃에 교회를 널리 알리고 바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바란다.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 신청받고 있어

9월11일(월) 영동세브란스 병원에서 열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이들을 신앙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어 그들의 어려움을 돕는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이 영동세브란스 병원에서 호스피스위원회 주최로 열린다. 교육은 9월11일(월)부터 9월28일까지 3주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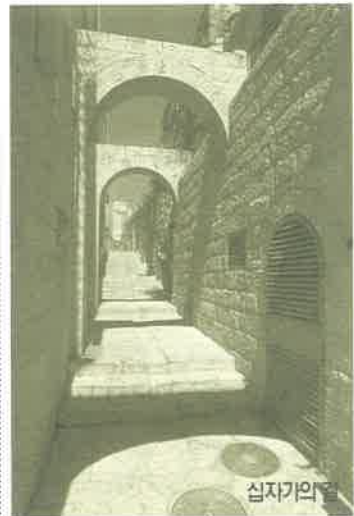
까지이며 수강료는 1인당 30,000원(단 5명 이상 단체 등록시 1인당 2,000원)이다. 우리교회가 앞으로 확장 하려는 계획 중 하나인 호스피스 사역에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란다.

관심있는 성도들은 오늘 (3일)까지 사무국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란다.

- 십자가의 길 -

예루살렘

수난의 길, 비아 돌로사를 걸으며



예루살렘은 가파른 계곡 길을 달려 숨 가쁘게 올라가야 하는 산 정상에 위치해 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한 이후 3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도답게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성지와 오늘날의 현대식 석조 건물들

이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평화의 도시’란 뜻의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국의 언어로 주기도문이 새겨져 있는 주기도문 교회를 비롯하여 예수님께서 장차 파괴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신 곳에 세워진 감람산 기슭의 눈물교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기도하셨던 겐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과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교회인 예수승천당 등,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의 여정을 되새길 수 있는 성지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어 순례객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빌라도 관저에서부터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갈바리아 산, 갈보리)까지 소위 비아 돌로사 약 800미터, 1317보의 거리로 구성된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사형선고를 받은 곳, 십자가를 메신 곳, 십자가를 메고 가다 쓰러지신 곳, 모친 마리아를 만나신 곳,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메었던 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 그리고 예수님이 묻히셨던 성묘교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생전에 마지막 길을 걸으며 멈추었던 14곳을 기념하여 이어져 있는 길이다. 15세기 이후로 매주 성금요일 오후 3시에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행로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줄지어 걷는 기도행진이 거행되며, 순례팀은 이종운 담임목사님의 지도와 말씀 인도를 무신 송수신기로 수신하며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의 여정을 생생히 되새기는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게 된다.

수난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 된 십자가의 길의 종착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여 처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던 성묘교회가 자리하고 있으며, 순례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성묘, 그 빈 무덤을 보게 될 것이다.

나소정(편집부)

순례자 특집

『주기도문·사도신경 새 번역안 채택』 추진 현황

순례자는 오는 18일 명성교회에서 열리는 제 91회 총회 때 주기도문, 사도신경의 재번역안 채택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3주에 걸쳐 다음과 같이 기획 연재 한다.

- 1. 9월 3일 : 새 번역안 채택 추진 현황 - 김민철 (편집부)
- 2. 9월 10일 : 새 번역안의 신학적 해설 - 이형기 목사(장신대 교수)
- 3. 9월 17일 : 새 번역안 채택의 필요성과 중요성 - 조병수 목사(합신대 교수)

주기도문·사도신경 재번역위원회(위원장 이종윤 목사, 이하 재번역위)는 지난 2004년 말 작업을 끝낸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의 새 번역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총회 때 다시 채택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새 번역안에 대해 이미 7개 노회가 그대로 채택할 것을 현의하는 등 이번 총회에서 새 번역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번 새번역안이 그대로 채택되어, 한국 교회가 바르게 번역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달 11일 총회 회의실에서 가진 모임에서 재번역위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었다.

우선은, 이번에 현의될 번역안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가 아닌 '과반수'로 처리할 사안이란 점이다.

즉, 주기도문·사도신경 재번역은 헌법의 교리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장을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오늘날의 말에 가깝게 고쳤을 뿐인 만큼 지난해 총회 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 것은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지난해 총회 때 새 번역안을 그대로 받기로 해 총회장이 가부를 묻은 끝에 가결을 선언했음에도 뒤늦게 교리 개정임을 들어 이를 다시 논의한 것은 절차상 오류라는 점이다.

재번역위는 총회 임원회에게 이상의 내용을 확인해줄 것과 그동안 번역작업을 하면서 정리한 자료집을 전국의 각 총대 앞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요청키로 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의 재번역 작업은 당초 우리 교회 이종윤 목사와 본 교회가 소속된 교단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의 온 교회가 동참하는 중대 사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새 번역 작업은 한국교회의 연합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하는 커다란 의미를 가짐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 귀한 새번역 작업이 본격 추진된 것은 지난 2002년 제87회 예장통합 총회에서 재번역위원회가 구성되면서부터다.

당시 이종윤 목사를 중심으로 한 재번역위는 교박 1년간 연구와 토론, 공청회를 거치며 새 번역안을 만들어 이듬해인 2003년 제88회 총회에 보고했다.

총회는 이를 두고 최상의 번역이라고 칭송했지만,

기존의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한국교회 전체가 쓰고 있는 만큼, 한국교회 전체의 공유가 필요하며 교단 차원의 채택은 보류했다.

그 뒤로 재번역위는 한국의 대표적 연합기구인 한기총과 KNCC로부터 목회자, 신학자들을 파송 받아 30개 교단 62명의 전문위원들로 확대된 재번역위를 다시 구성했다.

이 확대된 재번역위는 다시 위원장으로 이종윤 목사를 뽑고 1년여 간 연구를 더한 끝에 지난 2004년 12월 마침내 새 번역안을 확정했

“한국교회가 사용토록 성도들 모두가 뜨겁게 기도해야”

다. 이제까지 한국교회 교파를 초월해서 공동으로 작업한 일은 성경번역과 찬송가 편찬 정도였는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주요 교단 전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동 작업을 통해 번역된 것은 해방 이후 처음이다.

이 번역안이 이번 총회에서 채택될 경우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37년부터 써온 주기도문과 지난 1908년부터 백년이나 사용해온 사도신경을 새롭게 바꿔 쓰는, 한국 기독교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일이 된다.

이런 중차대한 일에 우리 교회와 이종윤 목사가 쓰임을 받는 것에 크게 감사함은 물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일을 놓고 뜨겁게 기도해야 할 것이다.

김민철 (편집부)

문화의 기록교회

문화선교사로서 사명 다 할 터...

‘한지(韓紙)’를 이용해 독특한 작품세계를 이룩한 ‘한지작가’ 전광영 집사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표적 미술인이다. 전 집사의 “한지작품”들이 다음 달 뉴욕의 유명한 전시장인 김포스터 갤러리와 미셸 로젠필드 갤러리 2 곳에서 동시에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14일엔 전 집사와 그 작품세계가 뉴욕타임즈지에 소개되었다. 뉴욕타임즈는 “그는 낡은 한지를 현대예술로 승화시키는 한국 작가이다. 그의 작품을 가까이서 보면 울퉁불퉁한 표면으로 되어 있지만,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면 은하수가 된다”며 극찬했다.



전광영집사 - 작품 중에서

3대째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에서 독자로 태어난 전 집사는 흥익대 미대를 졸업하고,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대학에서 유학생활을 했다.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 그였지만, 가난한 유학생 신분으로 장래가 불투명한 현실과의 싸움 속에 아내(김인숙 권사)와 가족들을 돌보며 미술공부를 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었다.

“그땐 정말 매일 절망에 빠져들어 삶을 포기하려고 결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데, 설교 말씀 중에

‘여기 죽고 싶은 사람 많이 있죠?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자임을 명심하십시오.’ 하는 말씀이 들려오는 게 아닙니까? 그 때 저는 ‘그 사람이 바로 나구나’ 하며 무릎을 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전 집사는 그 때부터 자신을 선택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히 나아가 수 있었다고 한다.

“물론 그 뒤로도 수없이 저의 작품세계는 길이 막히는 경험을 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이 한 계단을 더

주시는 구나, 교만하지 말라는 신호구나 하고 생각하며 기도에 매달리니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더군요.”

우리의 소재 ‘한지’를 재창조해 세계에 널리 알려진 전광영 집사는 그동안 미국과 일본 등을 오가며 개인 전 40여 차례를 비롯해 30년간 수많은 전시회를 개최했다. 10여 년 전부터는 외국학단에도 널리 알려지면서 오히려 국내보다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앞으로의 소망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전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늘 주일 저녁 예배 송영을 부를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세상에 이런 일을 하라고 천직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작품들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여생은 이웃을 위해 좀 더 나누고 싶다는 전 집사님은 하나님이 없이는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거듭거듭 강조하며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두고두고 주변과 나누고 싶다고 고백했다.

편집부

천국일꾼양성 - 아이와 함께한 성경통독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김희정 집사(11교구)



저에게는 중3과 초등학교 6학년짜리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는 졸곧 찬양대를 했고, 커가면서는 유아부에서 중등부를 거치며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저희 아이들을 유아부 때 돌봐주시던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지금의 달라진 아이들 모습에 깜짝 놀라며 옛날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그런 일도 했었냐며 재미있어 합니다.

그렇게 어리기만 한 줄 알았던 둘째 호준이가 캐나다에 가서 1년2개월을 혼자 지내다 17일에 돌아왔습니다. 많이 의젓해지고 더욱 건강해져서 하나님

께 감사했습니다. 큰아이 원준이도 초등학교 6학년 때 뉴질랜드에 1년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아이를 1년 간이나 부모와 떨어져 보낸다는 사실이 걱정스러워 혼자 눈물짓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누가복음12장 25-26절 말씀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더 할 수 있으나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 하느냐" 말씀을 읽으며 그렇게 걱정스럽던 맘이 편해지면서 우리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떠날 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원준이가 뉴질랜드에 가 있는 1년 동안 엄마는 여기서 너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네가 올 때까지 성경 한 권을 다 읽을게 너는 걱정 말고 건강히 있다가 와"

저는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일 성경을 읽었고 마침내 아이가 돌아올 무렵 성경 한 권을 다 읽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호준이가 캐나다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내봤던 터라 준비도 수월했고 아이를 돌봐줄 분도 마침 교인이어서 별 걱정이 없었습니다. 떠나는 날 저희 가족은 할아버지 댁에 가서 인사드리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시간이 되어 여권을 챙겨 입국장으로

가던 아이는 문득 돌아서 다급히 제 손을 잡으며 "엄마 나 가 있는 동안도 성경책 읽을 거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부모와 떨어지는 불안한 그 순간에 기도와 말씀 읽기를 부탁하는 아이를 보고, 먼 길 가는 아이에게 엄마가 믿음을 주지 못한 것 같아 공항에서 돌아오는 내내 회개했습니다. 또 자기가 힘들 때 하나님께 의지하려는 모습에 우리 가족은 많은걸 깨닫고 오히려 아이에게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캐나다에 가셔도 제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수시로 물어보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는 아주 흐뭇해하며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형 원준이가 한국에 없을 때 제가 형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읽는 모습이 든든해 보였나봅니다. 그랬던 아이가 1년이 지나 이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 덕에 저는 성경을 2번이나 통독하게 되었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눈동자와 같이 돌봐주시고 우리가족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아들들로 잘 키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시민양성 - 대학부 성경통독을 마치고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이우리(대학부)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학부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한 저는 여름 수련회에서 은혜 받은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수련회를 통해 특별히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던 중 성경통독수련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함께 정해진 부분의 성경말씀을 교대로 읽어가던 이전까지의 수련회와는 달리 이번 수련회는 각자 조용하게 자리에 앉아 자신의 통독분량에서 남은 부분을 읽어 가거나 처음 통독을 하는 사람들은 신약부터 읽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점심을 먹거나 중간의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며 묵상하였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평소 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이 나 궁금한 점들에 대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

하며 특별히 믿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긴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약속의 말씀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평안함이 생겼습니다.

카자흐스탄에 보내주시신 31명의 단기선교사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뜨거워지는 마음이 생겨지고 그 땅에 세우실 교회와 단기선교사들을 통해 카자흐스탄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도하였는데 선교팀들이 돌아와 승전 보고를 할 때 참으로 감격스러웠습니다.

삼일간의 통독수련회를 통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지체들이 참여하여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등정

- 이종운 목사는 9일(토) 한국 장로교 신학회 제9회 학술발표회를 소집하고 개회설교를 한다.
- 발령: 최일호 집사(13교구) POSCO 체코 지사로 발령, 8월28일 출국
- 주간 식당 봉사: 바울선교회(9월 3일) 엘리야선교회(9월10일)
- 금주의 식사 제공: 이기일 집사 김영숙 집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교회 제공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30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서울성경대학 각종 열린프로그램 좋은 열매 맺도록
2. Pilgrims' Vision Trip(성지순례단) 은혜롭게 준비되도록
3. 새로 번역된 주기도·사도신경 한국교회가 사용되도록
4. 사학법 개정과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요구 철회되도록

교회오시는 길

